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동물 의약품 산업 혁신거점 도약 전환점

차세대 동물 의약품 규제자유특구 4개 과제, 정부 후보과제서 '적정' 총사업비 490억원,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익산 등서 3개 실증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전북 차세대 동물 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며,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에 성공 다가갔다. 이번 결과로 전북은 동물 의약품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적정성위원회 심사에서 비수도권 지자체 20개 후보과제 가운데 전북을 포함한 단 4개 과제만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선정된 지역은 경남(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경북(의료목적 미량 칸나비노이드), 울산(재활용탄소연료)으로, 전북의 동물 의약품 과제는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양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에 의해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사업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과 함께 실증 R&D, 인프라 구축, 사업과 지원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2019년 첫

지정 이후 현재까지 전국 42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이 중 25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성과는 전북의 탄탄한 산업 기반이 뒷받침된 결과로 평가된다. 익산에는 국내 유일의 동물 의약품 전문 평가기관인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정읍에는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자리하고 있어 연구·평가·인허가 지원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실증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익산 동물 의약품 클러스터는 국내 동물 의약품 기업들이 집적된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익산시와 정읍시 일원 총 9.77km 부지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490억원(국비 278억·지방비 167억·민간 50억)을 투입해 3개 실증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사업으로는 △첨단 동물용 바이오 의약품 및 신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 실증 △자가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 의약품 독성 시험자료 일부 제출 면제 실증 등이 있다.

이번 특구 추진의 배경에는 국내 동물 의약품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

라한다. 국내 동물 의약품 시장은 약 1조3,743억원 규모로, 이 중 약 31%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용 의약품은 수입 비중이 74%에 달한다. 규제특례 실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입 대체 비중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현재 약 25억원에 불과한 자가백신 시장도 485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케어사이드 등 13개 예비사업자가 참여 준비를 마쳤으며, 생산유발 587억원, 부가가치 창출 276억원, 고용유발 352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향후 분과위원회·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 심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최종 특구 지정·고시는 오는 5월로 예정돼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적정성 평가 통과는 전북이 동물 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특구 지정을 이끌어내고,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자임 유가족협의회 상여행진서 청원경찰과 대치하는 참석자들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진행된 자임유가족협의회의 상여행진 현장에서 한 유족이 전북도청 청원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민주 임실군수 경선 둘러싼 갈등 격화

경선 후보 5인, "특정 후보에 감점 적용"… 공관위 결정 반복 요구 민주 도당위원장, 사실상 '수용 불가' 선 그어… "경선 신뢰 훼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당내 경선 규칙 반복 요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원칙 훼손'을 강하게 경고하며, 임실군수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윤준병 위원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각 후보들이 유튜브에 따라 서로 다른 경선 규칙을 요구하고, 이를 중앙당이 모두 수용하게 된다면 지방선거의 기본 원칙은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과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선은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일부 후보들의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번 갈등은 임실군수 경선 후보 5명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진명 후보에 대해 감점 적용을 요구하며,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을 반복해 출 것을 촉구하면서 촉발됐다.

이들은 후보 검증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중앙당 차원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를

사실상 '수용 불가'로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공관위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마친 사안을 사후적으로 뒤집는 것은 경선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특정 후보를 겨냥한 감점 요구나 불변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이 전북도당 공관위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당에 민원 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당의 공식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로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이의제기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전북지역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정체성, 도덕성, 당 기여도, 면접평가, 적합도 등 다각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관위는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평가 요소와 내부 심사를 병행했다는 점도 강조

했다.

현재 전북지역 경선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 상태다. 임실군은 총 6명이 참여하는 다자구도로,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 진출자를 가린 뒤 필요시 결선투표까지 진행되는 방식이다.

정읍시는 5인 경선으로 본경선 후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을 실시하며, 남원시와 완주군 역시 각각 4인 경선 체제로 본경선과 결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장 합동연설회 일정도 확정됐다. 30일에는 정읍(오후 2시)과 임실(오후 4시)에서, 31일에는 남원(오전 10시 30분)과 완주(오후 4시)에서 각각 합동연설회가 열려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원칙을 둘러싼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선을 변경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경우 향후 다른 지역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위원장의 강경 발언이 당내 기류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벚꽃·철쭉에 청보리까지… 전북도, 도내 대표 봄꽃 여행지 선정

전주 완산철쭉 꽃동산·장수 봉화산 철쭉 군락지·고창 청보리밭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7일 봄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이 계절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도내 대표 봄꽃 여행지를 선정, 소개에 나섰다.

전주 완산철쭉 꽃동산은 곱벚꽃과 철쭉이 어우러진 장관을 연출하는 명소로, 도심 인근에서 봄꽃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군산 은파호수공원은 벚꽃길과 함께 물빛대, 음악분수 등이 어우러진 야경이 특징이며, 익산 신흥근린공원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도심형 힐링 공간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적합하다.

정읍천 벚꽃길은 약 5km 구간에 벚꽃이 이어져 봄철 대표 산책 코스로 꼽히며, 야간 경관조명이 더해져 색다른 풍경을 제공한다. 남원 구 서도역은 목조건물 폐역과 꽃잔디 등나무꽃이 어우러져 감성적인 사진 촬영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김제 금산사 벚꽃길과 완주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코스로, 무주 설천 뒷밭길 벚꽃길과 금강변 마실길은 강을 따라 이어지는 벚꽃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임실 옥정호

작약꽃밭은 호수를 배경으로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진안 꽃잔디동산과 배낭살마을 유채꽃 단지, 장수 봉화산 철쭉 군락지 등은 대규모 꽃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 자연형 관광지로,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고창 청보리밭과 부안 수성당 유채꽃밭은 들관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색적인 봄 경관을 제공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봄꽃 관광과 연계한 지역 축제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읍 벚꽃축제 등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봄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역사문화도시 익산

왕궁리 5층석탑 사리장엄 1966년 7월 26일

미륵사지 사리장엄 2022년 12월 27일

미륵사지 석탑 1962년 12월 20일

왕궁리 오층석탑 1997년 1월 01일